천태종,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 타종법회

구인사서 제113회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도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총본산 구인사는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을 새롭게 주조, 봉안해 8월 21일 설법보전에서 타종대법회를 봉행했다.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은 높이 2.4m, 폭 1.2m 규모로 동 1200관을 들여 제작됐다. 주조는 원광식 성종사 대표(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가 맡았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타종하는 모습.

이날 참석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종단 대덕 스님 등 800여 사부대중은 대범종의 울림으로 일체중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발원했다.

도용 스님은 "정성모아 이룩한 범종 불사의 공덕을 온 법계에 두루 회향하니, 누리에 퍼지는 청정한 타종소리 우순풍조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았구나. 불국정토 성불을 향한 대중의 발원 지극하니 연꽃 당좌에서 울리는 종성 일음이요, 원음이라. 듣는 이들 모두가 번뇌에서 벗어나며 동참 불자들 불보살님 가피 함께해 깨달음의 길에 들어 해탈의 길을 나아가라"고 법문했다.

한편 천태종은 앞서 20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113회 정유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천태종은 두루마기 형태로 제작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권자본을 부처님전에 봉정했다. **박아름 기자**


성보문화재 종합병원 첫 삽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8월 24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사진은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발파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연기

9~10월로, 출범식 준비 심혈

8월 30일 예정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최근 회의를 통해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을 종단이 아닌 청년단체에서 주도하도록 기획 방향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를 조금 더 확실하게 꾸리고, 제대로 된 출범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그동안 많은 행사를 종단이 주도했지만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만큼은 젊은 세대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불교계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사회적 아젠다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출범식은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사 청년회 등이 기획회의 등을 거치며 준비하고 있다. 예상 출범일은 9월 말 또는 총무원장 선거 이후 2가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혼란스런 교계 분위기가 출범 연기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감 스님은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차기 총무원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황금유대 20년… 韓中日불교 발전 모색

20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9월 6~8일 봉은사 일원서


2011년 양양 낙산사서 봉행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1995년 베이징서 열린 제1회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이 자리에서 당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은 한 · 중 · 일 삼국 불교의 황금유대(黃金紐帶) 복원 및 발전을 선언했다. 이에 동북아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한 · 중 · 일 불교계는 삼국을 순회하며 불교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베이징에서 시작됐던 불교교류대회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이에 한 · 중 · 일 불교계는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봉은사 일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봉행한다. '한중일 3국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국 불교 지도자 스님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시작일인 9월 6일에는 상견례와 축하행사 및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잠실 콘서트홀서 열린다.

국민화합대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국민 화합 선언이 발표되며, 성공 기원 점등식으로 꾸며진다.

또한 대통령 영상 축사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 이후에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교성곡 '보현행원송'이 공연된다. 지휘는 김희경 작곡가가 맡았다.

본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대법회는 9월 7일 오전 10시 봉은사서 봉행된다. 명종과 명고 타종을 시작으로 한중일 불교

'지속가능 교류 발전' 대주제로
삼국 불교 지도자 300명 운집
교성곡 '보현행원송' 축하 무대
20년 기념하는 행사 다채 진행
평창 올림픽 성공 기원 대회도

의례에 따라 예불을 모시고 세계평화를 기원한다.

오후에는 '한 · 중 · 일 3국 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 교류 발전'을 주제로 인터콘티넬탈호텔 하모니홀서 국제학술강연회가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 박영환 동국대 교수 · 이봉춘 금강대 교수가, 중국 측 부단장 밍셩 스님 · 절강성불교협회장 이짱 스님 · 부회장 위에쩐 스님 · 오대산불교협회장 창샨 스님이 참여한다.

일본 측에서는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모치다 니치유 스님 · 입정교성회 사와다 코오세이 · 카메타니 에이오 스님이 발표자로 나선다.

강연회 마지막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3국 공동선언문이 합의 체결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중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봉은사 경내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리며, 대회가 진행되는 호텔 로비에서는 지난 20년 대회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한 · 중 · 일대회 20년 회고' 사진전이 개최된다.

또한 한국 주최 측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 · 중 · 일대회 20년 회고집〉 〈한국불교 소개 책자〉 등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대해 종단협은 "2022년까지 연달아 열리는 한 · 중 · 일 3국 올림픽 성공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기원하고 향후 삼국 불교교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도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선위, 선거인단 교통 · 식비 지원

중앙종회의원 율원대표 원명 스님 당선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인단의 교통비와 식비를 선관위 차원에서 지원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8차 회의를 열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관련 예산안 검토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의했다. 이는 과거 총무원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한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결의됐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 후보들의 선거 중립을 지키고,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을 단절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선거인단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 교구본사별 버스 대여비와 식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예상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 관음사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비행기 이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숙박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8월 30일 발족하는 '공명선거위원단'의 선거 감시활동을 위해 각 교구별로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서 열린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율원분야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직능분야 자격심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중앙종회 사무처에 입법청원 했다.

종훈 스님은 "종헌종법을 집행하는데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직능대표 후보자를 심사하는 데 용이하도록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상열풍, 간화선으로 이어간다

조계종 신도 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재돌입

명상 열기를 간화선 열풍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신도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 연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8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연구실무위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을 비롯해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 박희승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고명석 포교원 포교종책팀 선임연구원, 김홍근 간화선 연구소 실장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은 2003년 전국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조사에 이어 2004년 2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총 22차례 간화선 대중화팀 회의를 통해 간화선 대중화 사업을 진행했다. 조계종은 2007년 이후 어린이 선프로그램,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했으나 결국 지침서만 일반 사찰에 보급됐다. 이후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은 조계사 선림원과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3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방안 개발을 제안해 추진됐다.

6월부터 연구위 구성 및 추진이 논의됐으며, 현재 중도연기, 팔정도, 무아 및 불이 세계관 및 가치관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화두 참선을 생활화하기 위한 경전 및 선어록 공부 안내 및 심화코스 개발 등의 방향이 수립된 상태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일반사회에서는 명상 열기가 불고 있지만 정작 간화선 대중화는 주춤한 상태"라며 "보다 일반에 친숙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여 명상 열기가 간화선 열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